

특특뉴스

당근마켓, 불법거래 제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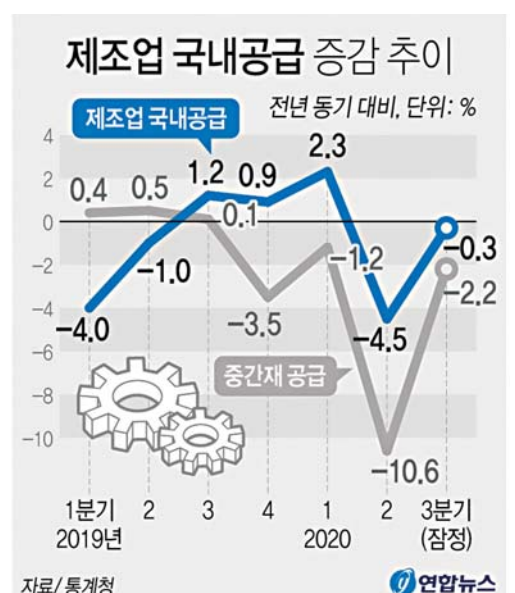
최근 부적절한 판매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은 중고물품 거래 서비스 당근마켓은 올바른 거래 문화와 건강한 이용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사람 및 생명 등 불법 거래 행위·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욕설 및 타인 모욕·차별 발언 등 서비스 경험을 저해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 사항이 담겼다.

특히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적 내용을 담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관련 게시물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게시물 미노출·강제 로그아웃·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수사기관 연계 등으로 강화했다.

그래픽 경제



제조업 국내 공급 2분기 연속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조업 국내 공급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지난 3분기 102.7(2015년=100)로 한 해 전보다 0.3% 감소했다.

이 지수는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분기(-4.5%)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실질)을 나타낸 것으로, 내수 시장의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아시아나 항공 30년 만에 '역사속으로'

1988년 설립 후 국내 2위 대형 항공사 도약 2009년 금융 위기 '휘청'...2022년 내 통합

1988년 설립 이후 국내 2위 대형항공사로 자리를 지켰던 아시아나항공이 30여 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대한항공이 1조8,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1위 대한항공과 2위 아시아나항공이 하나로 뭉쳐지게 된 것이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내년 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자회사로 운영한 뒤 1~2년 이내 흡수·통합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2년부터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88년 2월 창립한 아시아나항공은 복수 민항사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고수 성장했다. 해외여행 때 대한항공 외 다른 항공사를 탈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넓혀줬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12월 B737-400 항공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뒤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을 시작으로 점차 국내선 운항을 확대했다.

1990년에는 서울-도쿄 노선을 취항하며 본격적인 국제선 운항 항공사로 발돋움했고, 1991년 박삼구 당시 금호

기업 사장의 아시아나항공 사장 취임과 함께 서울-미국 로스앤젤레스 노선까지 취항했다.

2003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항공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 가입하며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2010년에는 영국 컨설팅업체 스카이트랙스가 승객 투표로 선정하는 올해의 항공사 1위로 선정됐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적 여행 전문잡지로부터 '올해의 항공사' 상을 받으며 차별화된 서비스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모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아시아나항공도 위기를 맞게 됐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운운을 잇달아 인수했지만, 충분한 자금이 없어 무리하게 계열사를 인수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그룹의 차입금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데 이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타치면서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아시아나항공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9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 관리는 이후 4년간 이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구조조정 방식의 일종인 자율협약 절차를 밟았다.

2014년 자율협약 종료 이후 영업을 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금호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은 2016년 5조

7,635억원, 2017년 6조5,941억원, 2018년 7조1,833억원, 2019년 6조9,658억원이다. 영업이익도 2016년 2,564억원, 2017년 2,456억원, 2018년 282억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437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박 전 회장이 작년 3월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된 HDC현대

산업개발(현산)의 인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으로 결국 올해 9월 무산됐다.

현산의 인수 무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 아래 놓였고, 3조원 가량의 정부 지원도 받았다.

채권단은 지난해와 올해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3조3,000억원을 지원했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 2,400억원도 추가 지원했다. /이나라 기자

전남농협, 농산물꾸러미 나눔 훈훈

김장김치 1,100박스 전달도

농협 전남지역본부부는 16일 나주 산포에 위치한 호남권친환경종합물류센터에서 농산물꾸러미 1,100박스와 김장김치 1,100박스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남농협과 전남새농민회·고향주부모임·농가주부모임이 농산물꾸러미와 김장을 직접 담았다.

농산물꾸러미와 김장김치는 전남관내 농촌지역 홀몸어르신, 취약농가, 지역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김석기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농산물꾸러미와 김장김치가 추운 겨울을 앞



농협 전남지역본부부는 16일 나주 산포에 위치한 호남권친환경종합물류센터에서 농산물꾸러미 1,100박스와 김장김치 1,100박스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가졌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둔 어려운 이웃에게 함께 라는 공동체의 온정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이 어려운 한해로 기억되

기 보다는 모두가 협동하여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낸 한 해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보혜 젊은잇새 봉사단, 집수리 봉사 구슬땀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생들로 구성된 보혜양조 젊은잇새 봉사단원들이 집수리 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16일 보혜양조에 따르면 젊은잇새 봉사단원 20명은 최근 광주 광산구 동곡동에서 대청소 및 공부방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단원들은 집 안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고 도배작업 등을 실시하는 등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부쳤다.

보혜는 지난 1월 젊은잇새 봉사단 27기 60명을 새롭게 선발했다. 그동안 젊은잇새 봉사단은 광주, 목포, 순천 지역에서 50명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지

원자가 대폭 늘어 활동 인원을 10명 늘렸다.

이들은 지난 1월 보혜양조 장성공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달부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혜양조 관계자는 "젊은잇새 봉사단은 보혜양조가 2006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우리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폭넓은 프로그램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골드클래스(주) ☎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9번길 6 (화정동)